

대웅화학, 한국Lilly 화성공장 인수

완제의약품 사업까지 진출 ... 한국릴리는 항생제 사업 축소로 매각

원제의약품 전문 제조기업인 대웅화학(대표 이성재)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국Lilly 공장을 인수하면서 완제의약품 제조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

대웅화학은 그동안 우루사의 원료인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과 항생제 원료를 전문으로 생산해왔다.

대웅화학은 릴리공장 인수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특화된 원료를 활용해 완제의약품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릴리공장은 토지 5000여평, 건물 1300여평의 항생제 생산라인으로 릴리가 항생제 사업을 축소하면서 대웅화학에 매각했다.

대웅화학 관계자는 “계약서상 인수가격은 밝히지 않기로 했으며, 완제의약품 생산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5/03/08>